

백남규 의병장의 희색 저고리



● 백남규 의병장

이강년 의병부대의 선봉장으로

●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어느 한 사람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미는 그 가운데서도 백남규(1884-1970) 의병장의 혹독한 삶은 유별나다. 백남규 의병장은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나와 안동진위대 부위로 복무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군인으로 평탄한 삶을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07년 한국군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면서 그는 의병의 길로 들어섰다. 이때 이강년 의병장께서 강원도 횡성 봉복사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이강년 의병장은 23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엘리트 코스인 선전관으로 활동했던 무관 출신이었다. 당시 의병장이 대부분 선비 유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이강년 의병부대의 전력은 대단했다. 무관 출신답게 의병의 조직·훈련·군율이 다른 의병부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강년 의진(義陣)에 합류한 백남규는 무관 출신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우선봉장이 되었다. 그 후 제천전투·갈평전투·죽령전투 등을 거치면서 도선봉(都先鋒)이 되어 이강년 의진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우수한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도 어렵거니와 무엇보다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일본군은 의병 토벌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민가를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는 그것을 전과로 삼아 상부에 보고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병의 출몰이 빈번한 지역

은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여 의병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1908년 6월 작성전투에서 이강년 의병장은 발목에 부상을 입고 일본군에 체포되어 그해 10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강년 의병장이 순국한 이후에도 백남규는 의병부대를 이끌고 서벽·내성 등지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1909년 12월 경기도 죽산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체포되었다. 백남규는 10년 선고를 받고 복역 중 감형으로 8년 만에 풀려났다.

옥에서 나오자 단양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나 여의치 않자 상하이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15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했다. 2차에 걸쳐 모두 23년간을 복역한 것이다.

백남규 의병장이 오랜 감옥살이 끝에 옥문을 나와 보니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있던 아들은 일제의 손에 살해되어 버렸다. 정치 없는 떠돌이 생활 5년 만에 53세의 나이에 재혼하여 아들과 딸을 두었다.

나라는 찾았지만 고단한 삶을 살다

● 해방이 되고 나라는 찾았지만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친일세력의 득세로 이 땅은 '도둑이 매를 드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친일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백남규 의병장에게도 이승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국사업에 참여하자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우국노인회 회장



● 구한말 의병부대

과 국민회 고문이 되어 활동하던 중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친구 권용일 의병장을 만났다. 권용일은 이강년의 병부대에서 우군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일본군과의 무수한 전투에서 생사를 함께 했던 동지요, 동갑나기 친구였다. 권용일 역시 이강년 의병장이 순국한 후 해외로 떠돌다 해방 후 고향인 제천에 정착한 터였다.

6·25전쟁은 백남규 의병장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전쟁 중 부인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몸소 끼니를 지어 어린 자식들과 생활을 해야 했다.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에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백남규의 유일한 낙은 제천 사는 친구 권용일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차비가 없었지만 충주에서 제천까지 1백여 리의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만나면 며칠이고 항일 의병장 시절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회색 저고리를 바꿔 입다

☯ 재산이나 일정한 별이가 없는 백 의병장으로서 끼니를 잇기도 어려워 의관을 갖춘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늘 남의 헌옷을 입고 다녔다. 때로 권용일의 며느리가

두루마기를 지어드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어려서 뵈었던 백남규 의병장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하루는 충주에 거주하시던 백남규 의병장께서 올라오셨는데 두루마기도 없이 동저고리 바람으로 서울 용산에 살던 우리 집으로 오신 것이다. 여비가 없어서 충주에서 서울까지 무전취식을 하시며 올라 오셨다고 했다. 1960년대 초반이었으니 당시만 해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 한술, 잠자리 정도는 제공하던 때였지 싶다.

입고 오신 한복 저고리가 오래되어 소매 섶은 다 닳고 깃도 다 해졌다. 흰색 저고리가 거의 회색 저고리가 되었던 것이다. 옷차림을 보시고 희산 할아버지께서 새 옷을 내오라 하며 갈아입기를 청했다. 그런데 백 의병장께서 한사코 갈아입기를 거부하셨다. 미안해하시기도 했지만 어린 내 눈에도 의연하셨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두 분이 사흘 동안 새 옷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느 날 희산 할아버지가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 백 의병장의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 ‘웬 선생님두 …’ 씨익 웃으며 할 수 없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이었다.